

【달기】

제 목	"천연기념물 수달" 총으로 쏜 잡아먹은 40대 농민
게시일	2017-02-13 10:23



수달 [연합뉴스 자료사진]

(장수=연합뉴스) 김동철 임채두 기자 =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쏜 잡아먹은 농민이 경찰에 적발됐다.

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모(48)씨를 불구속 입건했다.

오씨는 지난 8일 정오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쏜 죽인 뒤 장수군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족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오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달미를 잡혔다.

그는 "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"고 말했다.

경찰은 오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을 비취볼 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.

sollenso@yna.co.kr doo@yna.co.kr

(끝)